

검은 고양이

The Black Cat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3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Black Cat" (1843)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써 내려갈 이야기는 더없이 기괴하면서도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다. 나는 이 글이 믿어지기를 바라지도, 믿어달라고 애걸하지도 않겠다. 내 감각조차 스스로의 증거를 부정하는 이런 사건 앞에서, 믿음을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친 짓일 테니까.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으며, 결코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하기에, 오늘 내 영혼의 짐을 덜어내고자 할 뿐이다.

나의 당면한 목적은 일련의 가정 내 사건들을 세상 앞에 내놓는 것이다. 어떠한 사족도 붙이지 않고, 그저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이다. 이 사건들이 불러온 결과는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고통스럽게 했으며, 결국 나를 파멸시켰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건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 않겠다. 나에게 이 사건들은 오직 공포 그 자체였을 뿐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기괴한 해프닝 정도로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훗날, 어쩌면 누군가는 나의 이 환상 같은 이야기를 평범한 일로 격하시킬 수 있는 지성을 갖추었을지도 모른다. 나보다 훨씬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지성 말이다. 그런 이라면 내가 경외심을 담아 상세히 기술할 이 상황들을 보고도, 그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과관계가 잇따라 일어난 평범한 사건일 뿐이라고 간파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성품이 온순하고 정이 많다는 말을 듣곤 했다. 마음이 워낙 여리고 다정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정도였다. 나는 특히 동물을 무척 좋아했는데, 부모님께서도 그런 내 마음을 헤아려 온갖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셨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들과 함

께 보냈고, 녀석들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줄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었다. 이러한 성격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이어졌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다.

충직하고 영리한 개를 아껴본 사람이라면, 동물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우정이나 실낱같은 신의를 경험하며 상처받아 본 사람이라면, 짐승이 보여주는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지 잘 알 것이다.

나는 일찍 결혼했다. 다행히 아내는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었다. 내가 반려동물을 유독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챈 아내는, 기분 좋은 동물들을 데려올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새와 금붕어, 훌륭한 품종의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다.

그 고양이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외형을 지녔으며, 온몸이 철흑처럼 검었다. 게다가 영리함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아내는 마음 한구석에 미신적인 성향이 꽤 있었는데,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가 변신한 모습이라는 옛 민간 신앙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물론 아내가 이 점을 진지하게 믿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지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일 뿐이다.

플루토, 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플루토는 내가 가장 아끼는 반려동물이자 놀이친구였다. 오직 나만이 녀석에게 먹이를 주었고, 녀석은 내가 집 안 어디를 돌아다니든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심지어 길

거리를 나설 때조차 녀석이 나를 뒤쫓아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힘들 정도였다.

우리의 우정은 이런 식으로 몇 년간 이어졌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술이라는 악마의 손길에 휘둘러,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성격과 기질이 근본적으로 나쁘게 변해버렸다. 날이 갈수록 나는 더 번덕스러워졌고, 더 예민해졌으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아내에게 거친 말을 내뱉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물론 내가 키우는 동물들도 나의 변해버린 성질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다. 나는 짐승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대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플루토만큼은 어떻게든 아껴보려 노력했다. 그래서 토끼나 원숭이, 심지어 개가 실수로 내 앞길을 막거나 애정 표현을 하며 다가올 때면 가차 없이 해치곤 했지만, 플루토에게만큼은 손을 대지 않으려 애써 참았다.

하지만 나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다. 알코올만큼 지독한 병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결국 나이가 들어 성격이 다소 까칠해진 플루토마저도, 나의 험악해진 성질을 견뎌내야만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평소 자주 들르던 시내의 술집에서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나는 고양이가 나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놈을 낚아챘다. 나의 난폭한 행동에 겁을 먹은 고양이는 이빨로 내 손을 살짝 깨물었다. 그 순간, 악마 같은 분노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본래의 영혼은 순식간에 몸을 떠

나버린 듯했고, 진(gin)에 취해 뒤틀린 악마 이상의 악의가 내 몸의 모든 신경을 타고 전율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가련한 짐승의 목덜미를 움켜쥔 뒤, 작정하고 놈의 눈 한쪽을 안와에서 도려내 버렸다! 이 저주받은 만행을 글로 적어 내려가는 지금, 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서리가 처진다.

아침이 밝아 이성이 돌아왔을 때, 즉 밤새 저지른 방탕의 여파를 잠으로 씻어내고 일어났을 때,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기껏해야 미약하고 모호한 수준이었을 뿐, 내 영혼은 여전히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대로였다. 나는 다시 방탕에 빠져들었고, 머지않아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사이 고양이는 서서히 기운을 차렸다. 한쪽 눈이 사라진 눈구멍이 끔찍한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고양이는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으나, 예상대로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극심한 공포에 질려 달아나곤 했다. 예전에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짐승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나를 싫어하니, 아직 남아있던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처음에는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심술(PERVERSENESS)'이라는 기질이였다. 철학자들은 이 기질을 고려 대상에 넣지 않지만, 나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듯 심술이 인간의 마음이 지닌 원초적 충동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이는 인간

의 성격을 결정짓는, 나눌 수 없는 근본적인 능력 혹은 감정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비열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누구에게나 수백 번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최선의 판단이 가리키는 방향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떤 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어기려는 끊임없는 경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 심술이라는 기질이 나를 완전한 파멸로 이끌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신의 본성에 폭력을 가하며, 오로지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 잘못을 저지르려는 영혼의 이 심오한 갈망이 나를 부추겼다. 그 갈망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짐승에게 가한 상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가해를 완성하고야 말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냉정하게 고양이의 목에 올라미를 씌워 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에는 뼈저린 후회가 가득한 상태에서 나는 고양이를 매달았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고양이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에 나는 고양이를 매달았다. 내가 이 일을 저지름으로써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즉—만약 가능하다면—가장 자비롭고도 두려운 신의 무한한 자비조차 닿지 못할 만큼 나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들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고양이를 매달았다.

이 잔혹한 범죄가 저질러진 날 밤, 나는 불길이 치솟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커튼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 집 전체가 활활 타

오르고 있었다. 아내와 하인, 그리고 나는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그 화마를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날 이후 절망에 빠져 살았다.

재앙과 만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다만 나는 일련의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하려 할 뿐이며, 단 하나의 가능성 있는 연결고리라도 불완전하게 남겨두고 싶지 않다.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나는 폐허가 된 집을 찾아갔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벽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 예외적인 곳은 집 중간쯤에 세워진 그리 두껍지 않은 칸막이벽이었다. 내 침대 머리맡이 바로 그 벽에 닿아 있었다. 이 벽의 회반죽은 화마를 상당 부분 견뎌냈는데, 아마도 최근에 새로 발랐기 때문인 듯했다.

그 벽 주변에는 사람들이 뻘뻘하게 모여 있었다. 많은 이가 벽의 특정 부분을 아주 세밀하고도 간절한 눈빛으로 살피고 있는 듯 보였다. "이상하군!", "기묘해!" 같은 감탄사들이 들려오자 호기심이 생겼다. 내가 다가가 보니, 하얀 벽면 위에 마치 부조(浮彫)로 새겨놓은 듯한 거대한 고양이 형상이 나타났다. 그 형상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고양이의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그 환영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그것을 결코 환영이라 치부할 수 없었기에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윽고 이성적인 사고가 나를 도왔다. 나는 그 고양이가 집 옆 정원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사람들이 정원으로 몰려들었을

것이고, 그들 중 누군가가 나무에 매달린 고양이를 끊어 열린 창문을 통해 내 방 안으로 던져 넣었음이 분명했다. 아마도 잠든 나를 깨우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 후 다른 벽들이 무너지면서, 내가 잔혹하게 죽었던 그 희생자는 갓 바른 회반죽 속으로 파묻히고 말았다. 불길과 회반죽의 석회, 그리고 고양이 사체에서 나온 암모니아가 뒤섞이며 내가 목격한 그 기괴한 초상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내 양심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상상력에 남은 깊은 충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몇 달 동안이나 나는 그 고양이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는 후회와 비슷하지만 결코 후회라고는 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나는 심지어 그 동물을 잃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그 비천한 거처들을 뒤지며, 죽은 놈을 대신할 만한, 생김새가 제법 닮은 다른 고양이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최악이 들끓는 그곳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한곳에 머물렀다. 방 안의 가구라고는 커다란 진(gin)이나 럼주가 가득 담긴 거대한 나무통들이 전부였는데, 그중 하나인 통위로 검은 물체가 놓여 있었다. 나는 몇 분 동안이나 그 통의 윗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왜 진작 그 물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나는 다가가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플루토만큼이나 아주 커다란 놈이었다. 딱한 가지 점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플루토와 꼭 닮아 있었다. 플루토

는 몸 어디에도 흰 털이 한 가닥도 없었지만, 이 고양이는 가슴 부근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크고 형태가 불분명한 흰 반점이 있었다. 내가 손을 대자 고양이는 즉시 몸을 일으키더니, 기분 좋게 가르랑거리며 내 손에 몸을 비볐다. 마치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렇다. 바로 이 녀석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생물이었다. 나는 곧장 주인에게 고양이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인은 고양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 고양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전에는 본 적조차 없다고 했다.

나는 계속해서 녀석을 쓰다듬어 주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녀석은 나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기색을 보였다. 나는 녀석이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길을 가는 동안 이따금 몸을 굽혀 녀석을 다독여 주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 녀석은 금세 적응하며 집안 식구처럼 굴었고, 곧바로 내 아내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나로서는 곧 그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이유도, 방법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녀석이 나를 명백히 좋아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게 하고 짜증 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쾌감과 짜증은 서서히 증폭되어, 결국 지독한 증오로 변해갔다. 나는 그 녀석을 피했다. 다만 과거에 저질렀던 잔인한 행위에 대한 기억과 일종의 수치심 때문에, 차마 손을 대어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몇 주 동안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

만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서서히, 나는 그 녀석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마치 전염병의 악취를 마주한 것처럼, 나는 그 녀석의 끔찍한 존재로부터 소리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짐승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운 것은, 녀석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 아침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플루토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 또한 한 쪽 눈을 잃었다는 사실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끌 뿐이었다. 앞서 말했듯 아내는 매우 자애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한때는 나를 정의하는 특징이자, 내 삶의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기쁨의 원천이었던 바로 그 따뜻한 인류애를 아내는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고양이가 끔찍하게 싫었음에도, 고양이는 이상하게도 나에게만 유독 집착했다. 그 집요함은 독자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내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녀석은 의자 밑에 웅크리고 있거나, 내 무릎 위로 뛰어올라 혐오스러운 몸짓으로 나를 훑아댔다. 내가 걷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 녀석은 내 발 사이를 가로막아 나를 넘어뜨릴 뻔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날카롭고 긴 발톱을 내 옷에 박아 넣은 채, 내 가슴팍까지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단 한 방에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과거에 저지른 내 죄에 대한 기억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무엇보다 그 짐승이 주는 절대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그 공포는 단순히 신체적인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아니었다. 하지만 달리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나는 고백하기가 거의 부끄럽다. 그래, 이 범죄자의 감방 안에서조차 고백하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그 짐승이 나에게 불러일으킨 공포와 전율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망상 중 하나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 아내는 내가 앞서 언급했던, 그 흰 털 자국에 대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었다. 그 자국은 내가 죽인 고양이와 이 기이한 짐승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 자국은 처음에는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매우 불분명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아주 서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그리고 오랫동안 내 이성이 환상이라며 부정하려 애썼던 그 변화를 거쳐, 마침내 그 윤곽은 아주 또렷하고 엄격하게 자리 잡았다.

그 자국은 이제 내가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몸서리쳐지는 어떤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내가 그 괴물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며, 만약 * 용기만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형상 말이다. 그 자국은 이제, 다시 말하지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어떤 것의 형상, 즉—교수형 집행 틀이었다! 오, 공포와 범죄, 고통과 죽음을 불러오는 저 슬프고도 무시무시한 형틀이라니!

이제 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내가 경멸하며 죽여버린 동족과 다

를 바 없는 짐승, 바로 그 짐승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나를, 고작 짐승 따위가 이토록 견딜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다니! 아, 슬프도다! 낮이나 밤이나 내게 안식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낮에는 그놈이 한시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매시간 꿈에서 깨어나야 했다. 깨어날 때마다 그놈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아 있었고,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악몽이 육신을 입은 듯한 그 거대한 무게가 내 심장을 영원히 짓누르고 있었다.

이런 고통이 짓누르는 압박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내 안의 선량함은 그 희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다. 사악한 생각들이 나의 유일한 벗이 되었고, 그 생각들은 더할 나위 없이 어둡고 악독했다. 평소에도 변덕스럽던 성미는 모든 만물과 인류를 향한 증오로 변저갔다. 게다가 나는 제어할 수 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자신을 내던지곤 했는데, 갑작스럽고 빈번하게 터져 나오는 그 광기 어린 폭발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나의 아내—아, 가련한 여인이여—는 가장 혼하고도 인내심 강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아내는 집안일을 하러 가던 길에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그 낡은 건물의 지하실까지 나를 따라왔다. 고양이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내 뒤를 졸졸 따라왔는데, 하마터면 내가 머리부터 굴러떨어질 뻔하게 만들며 나를 미칠 듯이 화나게 했다. 나는 도끼를 치켜들었다.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지금까지 내 손길을 머뭇거리게 했던 그 유치한 공포심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고양이를 향해 내리쳤다. 내 의도대로만 내려갔다면 그 일격은 분명 즉사로 이어졌을 것

이다. 하지만 아내가 내 손을 붙잡는 바람에 도끼질은 멈추고 말았다. 아내의 방해가 나를 악마보다 더한 광기로 몰아넣었다. 나는 아내의 손아귀에서 팔을 뿌리친 뒤, 도끼를 아내의 머리에 박아버렸다. 아내는 신음 한 번 내뱉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나는 곧바로 시체를 숨길 계획을 세웠다. 아주 신중하고 차분하게 말이다. 낮이든 밤이든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다가는 이웃에게 들킬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시체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토막 내어 불태워 버릴까 생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때는 지하실 바닥을 파고 무덤을 만들기로 마음먹기도 했다. 마당에 있는 우물에 던져버릴까 고민한 적도 있었고, 마치 상품을 포장하듯 상자에 넣어 짐꾼을 시켜 집 밖으로 내보낼 방법도 검토했다.

그러다 마침내 앞선 방법들보다 훨씬 나은 방책을 떠올렸다. 나는 시체를 지하실 벽 안에 가두기로 결심했다.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희생자를 벽 속에 가두어 죽였다는 기록처럼 말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하실은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였다. 벽면은 허술하게 쌓여 있었고, 최근에 거친 회반죽을 덧칠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공기 중의 습기 때문에 회반죽이 채 굳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벽 한쪽에는 가짜 굴뚝이나 벽난로를 메워 만든 돌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하실 벽면의 붉은 색조와 똑같이 맞추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의 벽돌을 쉽게 들어내어 시신을 밀어 넣은 뒤, 다시 예전

처럼 벽을 쌓아 올리면 그 누구의 눈에도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지렛대를 이용해 벽돌을 손쉽게 들어냈다. 그리고 시신을 안쪽 벽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세운 뒤 그 상태로 고정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모습 그대로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모르타르와 모래, 그리고 털을 구해온 뒤, 기존의 회반죽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반죽을 만들었다. 나는 이 반죽을 새로 쌓은 벽돌 위에 아주 세심하게 펴 발랐다.

작업을 마친 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벽은 건드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치워냈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위를 둘러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적어도 여기만큼은,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음 단계는 그 짐승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놈 때문에 그토록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나는 마침내 그놈을 죽여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만약 그 순간 그놈을 마주칠 수만 있었다면, 놈의 운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활한 짐승은 앞서 내가 보여준 격렬한 분노에 겁을 먹었는지, 지금의 내 기색을 살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혐오스러운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내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 못 할 지복의 안도감이 밀려왔다. 밤새도록 그놈은 나타나지 않았다. 덕분에 그놈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적어도 하룻밤만큼은 아주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다, 내 영혼에 살인이라는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었음에도 나는 잠들 수 있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지났지만, 나를 괴롭히던 존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금 자유로운 몸이 된 듯 숨을 쉬었다. 그 괴물은 공포에 질려 영영 이곳을 떠나버린 것이 분명했다! 이제 다시는 그놈을 마주할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내가 저지른 어두운 짓에 대한 죄책감조차 나를 거의 괴롭히지 못했다. 몇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나는 모든 질문에 흔쾌히 답했다. 수색까지 벌어졌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펼쳐질 나의 행복이 보장되었다고 믿었다.

살인이 일어난 지 나흘째 되는 날, 경찰 일행이 예고도 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시 한번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엄격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숨어 있는 곳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나에게 수색에 동행하라고 일렀고, 나는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집안의 어느 작은 구석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샅샅이 살폈다. 마침내 그들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나는 근육 하나 떨지 않았다. 심장 또한 죄 없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처럼 차분하게 뛰었다. 나는 지하실 끝에서 끝까지 유유히 걸어 다녔다. 가슴 위에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이리저리 거닐었다. 경찰들은 수색을 마치고 완전히 만족한 듯 보였으며, 이제 떠날 준비를 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솟구쳤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단 한 마디라도 내뱉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들에게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켜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신사 여러분.” 일행이 계단을 올라갈 때쯤 나는 마침내 입을 뗐다. “여러분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빌며, 예의도 조금만 더 갖춰 주셨으면 좋겠군요. 아, 참, 신사 여러분. 이 집 말입니다만, 아주 잘 지어진 집이군요.” (무슨 말이라도 내뱉고 싶다는 광적인 충동에 휩싸인 나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아니,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해야겠군요. 이 벽들은—신사 여러분, 벌써 가시는 겁니까?—이 벽들은 아주 견고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허세를 부리려는 광기 어린 충동에 사로잡혀, 손에 든 지팡이로 벽돌 벽을 세게 내리쳤다. 바로 그 벽 너머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하느님, 부디 저를 저 악마의 송곳니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소서! 제가 휘두른 매질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무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이의 흐느낌처럼 억눌리고 끊어지는 소리였으나, 이내 그 소리는 길고 높으며 끊이지 않는 비명으로 돌변했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비정상적인 울부짖

음이었다.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그 처절한 비명은 마치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것이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죄인들의 목구멍과, 그 파멸을 보며 기뻐하는 악마들의 목구멍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듯한 소리였다.

내 속마음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는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리며 맞은편 벽으로 몸을 기댔다. 극도의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힌 계단의 사람들은 잠시 동안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다음 순간, 건장한 사내 열두 명의 팔이 벽을 허물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이미 심하게 부패하고 피떡이 된 시신이 구경꾼들의 눈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신의 머리 위에는 흥측한 짐승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붉은 입을 벌린 채 타오르는 외눈을 번뜩이는 그 괴물 말이다. 나를 유혹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고, 결국 그 울음소리로 나를 교수대로 보낸 바로 그놈이었다. 나는 그 괴물을 무덤 속에 가두어 벽을 쌓았던 것이다!